

휴머니티와 작위성의 충돌

- MBC “목표달성 토요일” 中 “god의 육아일기” 의 인기 요인과 문제점

신지연

1. 글을 시작하며

“god의 육아일기” 는 2000년 1월에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의 한 코너로 시작하여, “목표달성 토요일” 로 옮겨 방영중인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남성 다섯명으로 이루어진 보컬그룹 god와 그들이 키우는(?) 한재민이라는 어린아이가 만들어 내는 해프닝을 이른바 ‘지켜보기’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부분 코너에 불과하지만, 그 형식과 의미가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평하기에 충분하다. 쇼-오락 프로그램중 연예인이 출연하는 코너는 지금까지 무수히 있어왔으나 “god의 육아일기” 만큼 많은 화제와 반향을 낳은 작품은 보기 드물다. 이 코너로 인해 신인티를 막 벗은 god라는 그룹이 톱스타로 급부상하였고, 엇비슷한 코너들이 여럿 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타의 인기를 업고 제작된 여러 동류 작품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god의 육아일기” 의 인기와 지명도는 여전히 뛰어나다. 그만큼 이 작품은 많은 인기 요소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그에 비례해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god의 육아일기” 의 인기 요인과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보려고 한다.

2. 프로그램 인기의 요인

(1) 예기치 못한 호응

“god의 육아일기” 의 성공은 제작진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러가지의 새로운 코너를 계획하던 “일요일 일요일밤에” 제작진은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의 코너로 “아기가 왔어요” 를 선보였다. 이 코너는, 스타들이 한 회씩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맡아 키우며 일어나는 해프닝을 담는다는 내용으로 기획된 것이다. 첫 출연자로, 남성으로만 이

루어진 그룹 god와 첫돌이 채 안된 사내아기 한재민군이 발탁되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불과한 미혼 남성인 god 멤버들은 주어진 3일 동안 어쩔줄 몰라 당황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아기를 돌보았고, 이러한 육아(?) 장면이 “아기가 왔어요” 코너의 첫 회로 방송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다. 3일간의 어설픈 육아 기간 동안 의외로 재미있는 해프닝이 연이어 벌어져서 흥미를 더했고, 누구나 감탄할 만큼 예쁜 아기와 건장한 청년들의 부조화 또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 작품은 고정 코너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단발 출연자였던 god와 한재민군 또한 고정출연자가 되어, 코너 이름을 “god의 육아일기” 로 바꾸기에 이르렀다.

(2) 새로운 시도와 차별적인 컨셉

단 1회 방영부터 이렇듯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god의 육아일기” 가 가진 여러가지 차별성과 장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그동안 공중파 오락 프로그램에서 찾아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요소들을 몇가지 구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오락 프로그램의 오래된 관행인 ‘스타 의존’ 이라는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여타 스타 출연작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스타의 장기를 억지로 짜내거나 스타를 곤경에 빠뜨리지도 않고, 우스꽝스런 게임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스타에게 아기 돌보기라는 과제를 부여한 후, 24시간 내내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보여줄 뿐이다.

스타인 god는 자신들의 생활에 끼어든 아기라는 존재에 대한 대응 양상을 솔직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다. 시청자들도 모든 상황을 자연스러운 스타의 일상으로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또다른 주인공이 아기라는 점도 시청자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작품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다른 오락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god의 육아일기” 만의 독특한 색깔인 것이다. 그리하여 “god의 육아일기” 는, 연예인 출연의 장점인 익숙함과 흥미로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예인들의 빈번한

오락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부함과 상투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선정성, 자극성 등이 오락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근거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편으론 선정성 따위가 시청자에게 쉽게 어필한다는 현실때문에, 오락 프로그램들로서는 자극적인 연출을 탈피하기 힘든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god의 육아일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정서로 접근하였음에도 성공을 거둔 실례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god의 육아일기”는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10대에서 장년층까지의 넓은 시청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기와 육아라는 소재가, 젊은 세대에겐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내고, 기성세대에겐 육아 경험에 대한 추억과 공감까지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의 특정 세대 편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다양한 세대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낸 몇 안되는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3) 흔치 않은 휴머니티의 부상

그러나 이런 표면적 요소만으로 “god의 육아일기”의 지속적 인기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몇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겠는데, 우선 출연진의 활약이 크다는 점이 있다. 아기 한재민군은 외모도 남다르지만 여느 아기들과 달리 개성이 뚜렷하고 재주가 많다. 그때문에 이 작품이 활력있고 다채로와질 수 있었다. 또 그룹 god 역시 이 작품 하나로 단숨에 독보적인 인기를 확보할 만큼, 꾸밈없고 친근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주며 잠재된 스타성을 충분히 발휘했다. 또한 코믹한 자막과 구성 등 흥미로운 편집도 재미를 더했다.

허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 방송 출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기와 가수가 만났다는 인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정이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아기의 왕엄마 역할을 맡아 실제 엄마에 버금가는 질은 애정을 보여준 손호영군과 아기 사이의 교감은 여러 차례 시청자들의 경탄을 끌어낸 바 있다. 6월 13일 방영분에서, 사고로 입원한 자신이 낫설어 피하는 아기에게 손호영군이 보인 ‘모성에 가까운 애정’은 시청자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했다. 이렇듯 “god의 육아일기”는 그 진솔하

고 가식없는 면모로 인해 깊이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god의 육아일기”가 한참 화제에 오를 당시엔 시중에 ‘육아일기 조작설’이 심심찮게 떠돌았는데, 이는 오히려 “god의 육아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실성임을 반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만약 god와 아기 사이에 형식적인 ‘보육’ 관계만이 존재했다면, 이 작품은 이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방송이 감각성을 극대화하며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현재에 있어서도, 일견 낯은 듯한 ‘진실성’과 ‘휴머니티’가 여전히 유효하고 사라질 수 없는 명제임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으로서는 참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이지만, “god의 육아일기”가 육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는데에 미미하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선진국에 비해 육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미흡하고, 육아가 전적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책임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결혼도 안한 남성들이 세심하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TV 방송을 통해 꾸준히 보여지는 것은, 시청자들의 인식 전환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계와 문제점

(1) 아기와 ‘몰래카메라’

이렇듯 여러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이 작품은 판단력이 없는 아기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아기의 출연은 몇몇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기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방송 출연과 일상 생활 노출이라는 중요한 문제마저도 부모와 방송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하여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넓은 의미로는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송 촬영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아기의 생활을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지켜보기’ 형식의 방송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기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제작 방식은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몰래카메라’ 라고 할 수도 있다.

“god의 육아일기” 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방영되고 있는 데다, 아기의 의사를 추측, 대변하는 등의 가공 작업까지 행해지고 있다. (가공 작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고려한다면, “god의 육아일기” 제작진은 아기라는 존재의 특수성과 보호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 내려져가는 초기의 미덕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god와 아기의 상호작용 및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미 대형 스타가 되어버린 god의 매력이나 한재민군의 단편적인 재롱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스타 의존형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한계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세대의 공감’ 이라는 초기의 장점이 상당히 희석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는 소재가 무척 단조롭다는 작품의 특성에 비해 너무 길어진 방영 기간에도 원인이 있다. MBC는 타방송국과의 경쟁을 위해, 이 코너를 방영 다섯달만에 “일요일 일요일밤에” 에서 “목표달성 토요일” 로 옮기는 이례적이고 기형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자 적지 않은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한재민군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장기 방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 방영은 작품의 신선함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출연자들이 사생활 노출 및 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구속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그럼에도 재고의 여지 없이 장기 방영을 고집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획·개발 대신 안정적인 시청률 보전에만 매달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심각한 작위성의 피해

장기 방영의 부담과 흥미 위주의 연출 방식은 작위성이라는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god와 아기의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지나친 편집과 인위적인 연출 및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별다른 사건이나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힘든 ‘일상’ 묘사의 한계를 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시청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양 꾸며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속해있을 당시에는 ‘대본도 없고 연기도 없음’이 매번 강조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이때문에, 주인공인 god는 미리 정해진 계획과 이벤트를 전개하기 위해 대사 아닌 대사를 구사해가며 상황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경이다. 이는 촬영 현장의 노출을 통해 일부 시청자들에게 인지되기도 하였다.

편집의 작위성은 더욱 심각하다. 스토리 구성을 위해 시간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허다하며, 심지어 하루 동안의 촬영분이 이틀간 일어난 일로 짜깁기되는 바람에 날짜까지 ‘조작’ 되는 경우도 여러번 발생했다. (7월 1일 및 8일 방영분, 10월 14일 및 21일 방영분 등) 이런 시간상의 조작은 출연진의 의상 등을 자세히 대조하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관찰 없이 TV를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작위성은 다른 측면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god의 육아일기”에는 늘 많은 양의 자막이 사용된다. 이 자막은 여타 오락 프로그램에서처럼 재미있는 부분의 강조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쓰이고 있으며, 그 재치와 기발함으로 인해 인기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이 작품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자막의 개입은 되려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od의 육아일기”에서는 상황을 끼워 맞추기 위해 혹은 코믹한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자막이 활용되는 경우마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촬영 당시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전

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공하고 짜맞추기 위해 자막이 쓰이는 셈이다. 특히 아기의 생각과 기분을 추측해서 대변(?)하는, 위험하기까지 한 자막도 흔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위적인 연출로 인해 출연진의 일상은 상당 부분 가공되고 왜곡된 상태로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컨셉과 장점을 스스로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지켜보기’라는 형식상의 특성때문에, “god의 육아일기”를 통해 보여지는 출연진의 모습은 실제 모습 그대로인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현대 그 이면에 인위적인 연출과 편집이라는 가공 작업이 이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작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작품 자체의 리얼리티에 대한 혼란까지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다큐 드라마’에 가까울 정도로 변형된 작품을 방영하는 것은, 심하게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는 작지 않은 문제라 하겠다.

(4) 기획의 독창성 문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 작품이 일본 방송의 컨셉을 따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god의 육아일기”가 기획과 아이템의 비중이 큰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현대 그 아이템이 힘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 방송에서 얻어 온 것이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스타의 아기 키우기’는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소재일 수도 있다. 또한 기획 의도를 뛰어넘는 주인공들의 애정과 개성이 있었기에 이 작품이 유의미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있다. 허나 어떤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그 시작이 독창적이지 못하다면 프로그램의 가치 역시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음을 방송 제작진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시청자와 밀접하고 시청자 참여의 여지도 많은 방송 장르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시청자의 참여의식 또한 높아진 요즘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시청자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중 옥석은 가려야 하겠으나, 오

락 프로그램의 기능이 시청자들의 휴식과 위안이기에 폭넓은 공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청자 의견의 수렴은 그 자체로 제작 과정의 일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쇼-오락 프로그램 제작진의 대부분이 ‘시청률’ 이외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는 인색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god의 육아일기” 역시 높은 인기만큼이나 많은 양의 시청자 의견과 질문이 여러 채널을 통해 쏟아졌으나, 제작진이 이를 검토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방송의 숨겨진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오히려 제작진 당사자가 아닌 시청자에 의해 포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영 열달째인 현재, “god의 육아일기” 에서 초기의 신선함 대신 매너리즘이 증폭되고 있는 원인인 장기 방영 또한, 시청자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된 적기 종영 요구를 무시하고 추진된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대로 “god의 육아일기” 는 겉으로 드러난 높은 시청률 외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제작진의 지속적인 고민이 뒤따르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장점은 얼마든지 퇴색되고 변질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god의 육아일기” 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솔직하고 명쾌한 연출 태도, 적절한 종영 타이밍 선정, 적극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좀 더 알차고 작품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랬다면 시청률 몇퍼센트의 차이는 오히려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